조선후기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 기록의 특징 연구*

조수미**

〈차 례〉

1. 머리말
2. 조선후기 유배일기의 인정세태 기록의 양상
   1) 주변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
   2) 염량세태(炎凉世態)에 대한 자각과 자기중심적 인물평가
3. 조선후기 유배일기의 인정세태 기록의 특징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의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 기록의 양상과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배일기는 대개 문학적 소양이 있는 저자가 낯선 곳에 머물며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라는 변화의 시대를 배경으로 유배일기는 유배객을 둘러싼 인정세태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논의대상인 유배일기들의 경우, 변화하는 사회와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8269).

**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낯선 인간형에 대한 기술의 의지는 별로 없어 보였다. 그 대신 오랫동안 그들 주변을 지켜왔던 사람들에 대해 새삼스런 관찰의 결과를 기술하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인물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에 대한 기술 속에 일정부분 미시사적인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유배객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스치듯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유배객의 실질적 삶과 관련된 부분까지였다.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찰,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탐색을 하기에는 유배라는 상황이 유배객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배는 원치 않는 것일지언정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관찰과 탐색이 여의치 않도록 하는 제약이기도 하였다. 유배는 엄연히 징벌의 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주제어: 조선후기, 유배일기, 인정세태, 염량세태(炎涼世態), 주관적 인물평가, 미시사적 가치

1. 머리말

유배는 종종 한 작가의 작품세계의 변화 및 성숙을 견인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유배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유배일기는 문학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친 여타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문학적 진실과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그동안 유배문학 연구는 주로 한시, 시조, 가사, 소설 등 문학의 정통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유배일기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기 위해서는 대상작품의 발굴 및 원문 해독과 같은 기초적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그동안의 유배일기 연구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살피기 위한 작가론적 연구의 한 방편으로 진행되어 온 듯한 인상을 준다. 몇몇 작가의 유배일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유배지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드물지 않은 편이다. 이는 지역문화 발굴의 시대적 분위기와 관련 있는 듯하다.[1)]

유배일기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하나로 본고는 조선후기의 유배일기를 대상으로 하여, 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 서술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한글로 기록된 유배일기를 중심으로 하되, 방증이 될 한문 유배일기도 포함하고자 한다. 본고가 특히 '조선후기'의 '한글 유배일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살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후기는 이전의 시대와 문학사적으로 구분되는 변화의 시대였다. 다양한 문학 갈래들과 숱한 문학적 시도들이 명멸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갈래와 시도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하고 시대의식에 부합하지 못하여 도태되기도 하였다. 과연 유배일기는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어떤 지점에 놓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본고가 밝히고자 하는 의문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유배일기를 살피는 데 있어서 한

1) 제주도, 남해도, 진도, 거제도, 흑산도 등이 특히 절도유배(絶島流配)의 장소로 이름났던 곳인데, 이곳의 유배인물과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이미 양순필에 의해 70-80년대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2000년대를 전후로 하여 다시 연구가 재점화 된 듯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는 버려진 땅에서 각광받는 곳이 되어간 제주도의 문화를 다각도로 살핀 연구(김덕삼・최원혁, 「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대, 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71호, 2014, p. 3) 등과도 관련 있다.

글로 기록된 유배일기를 주요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한글 유배일기들의 기록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배일기는 한문 유배일기가 약 40여 편[2]이고, 한글 유배일기는 8편이다. 그런데 한문 유배일기는 그 기록시기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골고루 흩어져 있는 반면, 한글 유배일기는 모두 조선후기인 17-18세기에 집중되어 있다.[3] 조선후기의 유배일기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한글 유배일기에 우선 집중하여 살피는 것은 효율적이고 타당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한글 유배일기에 대한 연구는 멀고도 험한 한문 유배일기 연구의 길을 열기 위한 좋은 열쇠가 될 것이다.

유배의 노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의금부노정기』에 의하면 유배지는 주로 전라도와 경상도의 섬들과 함경도 같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있는 약 336개 고을로 지정되었고 유배객들은 하루 평균 86.1리를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다.[4]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유배는 어쩌면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배객들은 종종 유배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기회로 생각하고 '感君恩'을 외치기도 하였다.[5] 이처럼 유배일기가 새로운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사람들의 인정세태를 기록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에서 기록되었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과연 유배일기가 그런 기대에 부합했는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 황위주,『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pp. 790-791. ; 최은주,「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회,『대동한문학』제30집, 2009, p. 14.

3) 8편 중 17세기 1편, 19세기 1편을 제외한 6편은 모두 18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4) 김경숙,「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문제연구소,『역사비평』67호, 2004, pp. 262-282.

5) 우리들이 이런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어찌 임금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余謂曺友曰使吾輩得見此景豈非天恩耶曺友曰諾(『國譯 太和堂北征錄』,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다운샘, 2007, pp. 37-39.)

2. 조선후기 유배일기의 인정세태 기록의 양상

인정세태란 세상 사람들의 인심과 세상의 물정을 의미한다. 본고는 유배객을 둘러싼 인적환경의 상황을 인정세태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유배객의 인적환경은 유배객이 맺고 있었던 기존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유배로 인해 촉발된 새로운 인간관계 혹은 변화된 인간관계 및 그로인해 확장된 인적 경험을 포함한다. 조선후기에 유배를 경험하고 일기를 남긴 유배객들은 그들의 인적환경을 어떻게 서술했는지 살펴보자.

본고는 조선후기의 한글 유배일기 8편[6] 중 특히 5편을 중심으로 살피되 방증자료가 될 수 있는 한문 유배일기를 함께 살피고자 한다. 본고가 중점적인 대상으로 삼은 한글 유배일기 5편은 「남해문견록」, 「북관노정록」, 「남정일기」, 「적소일기」, 「신도일록」이다. 「남해문견록」은 유의양이 남해에 유배 갔을 때, 「북관노정록」은 함경도 종성에 유배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7] 「남정일기」[8]는 박성원이 흑산도로 유배되어 위리안치 되었을 때의 일을 배행(陪行)한 손자 박조수가 기록한 일기이다. 박조수가 그 때의 일을

---

6) 현전하는 한글 유배일기 8편 중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은 김수항의 유배일기 「기사유사」, 김창집의 「임인유교」, 김제겸의 「선고유교」이다.(이들 일기는 유배당사자와 서술자가 다른데 편의상 유배당사자의 이름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이 일기들은 모두 유배객이 賜死되기 직전의 하루에서 나흘 동안의 짧은 며칠을 다루고 있다. 필연적으로 인정세태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5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이상 3편의 서지사항은 이승복, 「『遺敎』의 書誌와 文學的 性格」, 서울대 규장각, 『奎章閣』 20, 1997, pp. 56-61을 참조하였다.

7)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북관노정록』, 신성출판, 1999, pp. 11-34. ;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견록』, 신성출판, 1999, pp. 9-16.

8) 최강현, 「南征日記를 살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어문논총』 4·5, 1985, pp. 122-125.

궁금해 하는 아내를 위해 한글로 기록한 것이다. 김약행은 진도 금갑진에 유배되어 결국 해배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하였는데, 「적소일기」[9]는 그의 유배일기이다. 「신도일록」[10]은 이세보가 신지도에 위리안치 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유배일기이다.

「남해문견록」, 「북관노정록」의 유의양과 「남정일기」의 박성원의 유배기간은 반년을 넘지 않은 반면, 「적소일기」의 김약행은 8년, 「신도일록」의 이세보는 3년의 유배생활을 했다.[11] 유의양은 비교적 호의적인 대접을 받으며 유배생활을 했고, 박성원은 유배지에서의 고충이 심각한 양상을 띠기 전에 해배되었다. 그에 비해 김약행은 결국 해배되지 못하였고, 이세보는 유배형 중 가장 엄중하다는 위리안치를 당했다. 이처럼 유배의 분위기가 「남해문견록」, 「북관노정록」, 「남정일기」의 전자와 「적소일기」, 「신도일록」의 후자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1) 주변인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

유배객의 인적환경에는 유배를 당하기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간관계가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한다. 그런데 유배라는 사건을 통해 기존의 인적환경에 변화가 생기곤 하였다. 유배일기에는 이전에는 주목하지 않았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새삼스런 관심과 관찰의 결과가 자주 기술되어 있다. 특히 하인이나 청지기, 겸인들은 양반들이 유배를 겪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

---

9) 김희동,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2003, pp. 3-10.

10) 진동혁, 「李世輔의 流配時調 硏究」, 단국대학교, 『논문집』 15, 1981, pp. 9-11.

11) 일기에 기록된 기간을 살펴보면 대략 「남해문견록」 5개월, 「북관노정록」 6개월, 「남정일기」 2개월 보름, 「적소일기」 8년, 「신도일록」(3년 유배기간 중) 2년이다. 일기가 다루고 있는 기간과 실제 유배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던 사람들, 즉 기존의 인적환경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유배라는 뜻밖의 사건 앞에서 이들의 행동은 새삼 유배객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유배객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 ○ 셔울셔 써날 ᄯᅴ의 소위 겸인이라ᄒᆞ고 ᄯᅡ라ᄂᆡ닷기의 그 ᄯᅴ를 당ᄒᆞ여 비록 ᄒᆞ인이라도 ᄯᅡ라오는 거시 유감ᄒᆞ여 오지말난 말 아니ᄒᆞ엿써니 먼 질의 병상이 그럿케 심ᄒᆞ나 겻히 잇지안코 죽막을 만나면 술이나 먹고 공연이 남과 시비만 ᄒᆞ는고로 도로 가고져ᄒᆞ되 한ᄉᆞᄒᆞ고 ᄯᅡ라오니 마음의 혜아리되 져 놈이 그랴도 혹 인졍이 잇셔 그러한가 ᄒᆞ엿써니 밋도즁의 드러오ᄆᆡ 일졀 겻히 잇는 일 업고 밤낮즈로 도인들과 추축하여 술 먹기를 소일ᄒᆞ고 잡기ᄒᆞ기를 위ᄉᆞᄒᆞ니 남의 소치ᄒᆞ는 거시 ᄲᅳᆺ기의 도루여 피연ᄒᆞ며 ᄯᅩ 거짓말과 남ᄒᆞ고 시비가 비경ᄒᆞ니 이즁의 이 놈으로 ᄒᆞ여 더욱 셩화ᄒᆞ겟ᄯᅩ다[12]

이세보의 한글 유배일기 「신도일록」의 한 장면이다. 유배를 당한 자신을 따라 나서는 소위 겸인이라는 자를 보고 처음에 이세보는 내심 감동한다. 그런데 그 하인의 행동거지를 보니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뿐이요, 자신의 외로움을 더하기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전인 유배객을 모시는 일은 소홀히 하고 사람들과 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소일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이세보는 이 하인 때문에 오히려 더 '성화'라고 한탄하였다.

유배지에서 하인들의 행동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유배객의 생활을 돕는 실질적 조력자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유배객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거나, 유배객을 감시하는 자들에게 뜻밖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2) 「신도일록」, pp. 26-27.

> ○ 내 삼 년째 귀양살이를 하니, 두루 소문을 들으니, 전후 이름 난 벼슬아치들이 귀양살이하는 곳마다 다 조용히 귀양살이를 하고자 하여도 奴子, 婢子와 裨將, 傔從이 여럿이 가면 자연히 적객을 말 듣게 하는 이가 있었으므로, 나는 겸종 1인과 노자 1인을 데리고 와서 밥 짓고 반찬 익히기를 저희만 부리고, 술 빚기도 저희만 시키고, 밤낮으로 앞에 두고 사립문 밖에는 잠깐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니,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번 적소에 오신 이는 하인도 아니 데려 온 듯하다."고 하였다.[13]

유의양의 한글 유배일기 「북관노정록」의 한 장면이다. 유의양은 유배지에 하인들을 여러 명 데려오다 보면 사고를 일으키는 하인이 있게 마련이고 '자연히 적객을 말 듣게 하는 자'가 있게 마련인 것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다. 죄를 짓고 내려온 유배객으로서 그런 구설수에 휘말려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유의양은 적은 수의 하인만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쓸데없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였다. 어찌나 하인들을 잘 단속하였는지 유배지의 사람들은 유의양이 하인을 아무도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유의양이 말한 것처럼 조용히 귀양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인들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였다.

대개 유배객들은 가까이 부리고 살았던 하인들이 유배지에서 큰 근심거리가 되리라는 것은 이전에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인들이 일으키는 사고는 생각 밖으로 유배객들에게 당황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유배객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늘 있어왔던 하인들의 언행을 그 전보다 더 자세히 살피게 되었는데, 그러한 관찰의 결과가 유배일기에는 자주 기록되었던 것이다.

---

13) 「북관노정록」, pp. 123-124.

○ 언남이 영만이 돌몽이 츈션이 츈션이ᄂᆞᆫ 독낙뎡ᄃᆡ 죵이라 삼원이 삼원이ᄂᆞᆫ 창꼴ᄃᆡ죵이라 닙으시던 옷 각〃ᄒᆞ나식 주시고 언남이ᄃᆞ려 분부ᄒᆞ시ᄃᆡ 샹뎐이 이런 ᄯᅢ를 당ᄒᆞ야실제ᄂᆞᆫ 더고나 샹시예 편히 디낼적과면 잘 셤겨야 올코 항거시 비록 싀골이나 팀체ᄒᆞ야이셔도 시졀이 ᄆᆡ양 이러치 아니면 아ᄂᆞᆫ 원이라도 너희 잘 셤기면 술잔이라도 먹일거시오 너희를 그리ᄒᆞ리라 ᄒᆞᄂᆞᆫ거시 아니라 형셰업다ᄒᆞ고 샹뎐을 ᄇᆡ반ᄒᆞ면 듯ᄂᆞ니라도 다 통분이 너기ᄂᆞ니라[14]

위는 김제겸의 유배기록인 「선고유고」[15]의 한 장면으로, 이를 통해 유배를 당했을 때 유배객들이 하인들의 태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사(賜死)될 상황에 처한 김제겸은 삶을 마무리하는 절차의 하나로 그의 유뱃길을 따라온 하인들에게 입던 옷들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은 어려운 때일수록 상전을 잘 모셔야 한다는 당부를 하는 장면이다. 상전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상전을 배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괘씸하게 여길 것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남은 가족들을 잘 보좌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은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 또한 그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부탁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유배지에서는 하인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새삼스런 관심과 관찰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 쳥직이 김거삼이라ᄒᆞᄂᆞᆫ 재 좌의 잇기로 젹소의 ᄒᆞᆫ가지로 뫼시고 갈 일을 일너 제집의 ᄃᆞ려오라ᄒᆞ니 거삼은 ᄀᆞᆺ오시적부터 조부쥬

14) 「선고유교」, p. 5.

15) 죽취 김제겸이 유배지에서 사사될 때의 급박한 며칠을 배행한 김원행이 기록한 글이다. 김제겸은 김원행의 生父이자 호적상 숙부이다.

> 좌우의 뫼셔 졍이 골육이나 다르디 아니ᄒᆞ매 제 또ᄒᆞᆫ 그러ᄒᆞ여 개연히 허락ᄒᆞ거늘[16]

박조수가 할아버지 박성원의 유뱃길을 배행하고 기록한 유배일기인 「남정일기」의 한 장면이다. 청지기 김거삼이라는 자는 「남정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가장 자주 묘사된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배 가시는 조부 박상원과는 어렸을 적부터 가까이 지낸 '정이 골육이나 다르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함께 적소까지 뫼시고 가자고 하니 선뜻 따라 나선다.

> ○ 처음은 거삼을 ᄃᆞ리고 가다가 듕노의셔 면쳔으로 보ᄂᆡ여 이리 가는 소문을 뎐ᄒᆞ려 ᄒᆞ엿더니 길히셔 ᄆᆞᆯ게 차이여 능히 것지 못ᄒᆞᆯ 분 아니라 미쳐 노□□[17]쥬면치 못ᄒᆞ여시매 도로 셔울노 보내여 노ᄌᆞ를 어더가지고 면쳔으로 가라 분부ᄒᆞ다.[18]

그런데 거삼의 사람됨이 다소 칠칠치 못해 보인다. 도중에 말에 차이는 사고를 당할 뿐 아니라, 대체 유뱃길 따라 떠날 준비를 어떻게 해 온 것인지 노자도 부족해 도로 서울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박조수가 그에 대해 하는 인물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박조수가 「남정일기」에서 김거삼에 대해 가장 자주 한 인물평은 바로 '우습다'는 것이다.

> ○ 거삼이 여긔와 힝식이 심히 경황 업ᄂᆞᆫ 듕 오히려 ᄒᆞᆫ□을 내여 ᄒᆞ비를□ 탑셤이라ᄒᆞ는 기ᄉᆡᆼ의 집의 가 자니 심히 가증ᄒᆞ고 경황 업ᄂᆞᆫ 듕 또ᄒᆞᆫ 우습더라[19]

---

16) 「남정일기」, pp. 9-10.
17) 해독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8) 「남정일기」, pp. 13.
19) 「남정일기」, pp. 25-26.

○ 거삼이 예와 고졍을 찻고□ 머믈 ᄯᅳ지 이셔ᄒᆞ더니 써나기를 뎡ᄒᆞ매 남네 써나기를 서로 섭섭ᄒᆞ여ᄒᆞ고 탑셤이 셩 우희 은신ᄒᆞ여 셔셔 가는 길흘 ᄇᆞ라보고 우니 긔삼이 ᄯᅩᄒᆞᆫ 눈물을 □이는디라 실노 우읍더라[20]

○ 이윽고 죠라□그위 안히 드러와 집 ᄉᆞ면과 방안흘 다 둘너보니 경샹황늠ᄒᆞᆫ 듕 긔삼이 숨어 ᄉᆡ 뫼양의□ 못 나와 애쓰던□ 이제 ᄉᆡᆼ각ᄒᆞ니 우읍더라[21]

○ 이ᄯᅢ 긔삼이 방과 마루로 나들며 브억을 엿보고 하하 우스며 와 던ᄒᆞ되 고이터라 예셔는 ᄯᅥᆨ 홀 줄을 모르데 ᄑᆞᆺᄎᆞᆫ 어이 삼고 송편을 ᄒᆞ려나 인졀미랄 ᄒᆞ랴나ᄒᆞ고 하하 웃고 좌우로 ᄲᅱ놀며 납ᄯᅥᆨ는 즈시 우습더라 대개 긔삼이 예 와 가치여 만고 나갈 되 업는디라 날마다 우혈업시 이□ 밥 짓는다□ 아닌즉 긔형괴상과고 약약ᄒᆞᆫ 소릴 지르니 우습기 심ᄒᆞ되 거위 젹막ᄒᆞᆫ 수회를 위로홀 너라[22]

유뱃길을 배행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김거삼이 '탑셤'이라는 기생과 정이 들어 그 기생의 집에 가서 자고 올 때, 또 그 기생과 눈물을 쏟으며 이별할 때, 적소에 도착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쌓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숨어 나오지도 못하고 겁먹고 애를 쓸 때, 간만에 떡을 해 먹게 되었다고 주책없이 '하하'하고 웃으며 날뛸 때 박조수는 청지기 김거삼이 '경황 없는 중에도 우습'고, '이제 생각하니 우습'고, '실로 우습'고, '우습기 심하'다고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러나 거삼은 박조수 일행에 짐만 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남정일기」 전체를 살펴보면 거삼만큼 박조수 일행에 엉뚱한 즐거움을 준 이는 없다. 실제로 박조수는 거삼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이 유배생활의 '적막한 수회를 위로'하였다고 쓰고 있다.

---

20) 「남정일기」, p. 60.
21) 「남정일기」, p. 39.
22) 「남정일기」, p. 50.

비록,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유배생활에 작은 즐거움을 준 고마운 사람이긴 하지만, 유배생활을 겪으면서 외로움과 답답함을 함께 나누지 않았더라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길 생각이나 했을 것인가. 앞서도 말했듯이, 거삼은 조부와 매우 가까운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신분이나 능력이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크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니며 더구나 기록으로 남길 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유배일기에는 유배객들의 주변인물들, 특히 하인이나 겸인처럼 늘 곁에 있었으나 평소에는 관심과 관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서술이 자주 보인다. 유배로 인해 촉발된 새삼스런 관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는 평소에는 소홀히 대해왔던 주변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이유를 제공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2) 염량세태(炎凉世態)에 대한 자각과 자기중심적 인물평가

유배객을 둘러싼 인적환경은 유배라는 사건 앞에서 변화를 보인다. 그 변화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사람들의 진정성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유뱃길이 험난하고 쓸쓸할수록 자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더 커지고, 반대로 기대를 저버리고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은 깊어진다.[23]

---

23) "인간의 사악함과 정의, 세상인심의 浮沈, 무상한 세상인심, 사라지지 않는 공명정대한 논의, 죽어서는 영광, 살아서는 수치,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 친구들이 인정해준 사실에 대한 보답 등이 한결같이 이 책에 구비되어 있지 않음이 없다."(至若人品之邪正, 世道之乘降, 無常之物態, 不泯之公議, 死而有榮耀, 生而爲 羞辱, 人倫藻鑑之明, 知遇許與之報, 無不一備於是.)(남구만, 「北遷日錄」 서문(임재완 편역,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다운샘, 2005, p. 12)는 「北遷日錄」 서문의 지적은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유배는 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형벌이므로 유배일기에도 정치적 해명이나 인물평이 자주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자신이 연루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정적(政敵)에 대한 공격적인 인물평은 그리 많지 않다. 간혹 유배일기의 서두에 유배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기 전반에 걸쳐 정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자신의 신원(伸寃)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일기가 아닌 보다 공적인 글쓰기의 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정치적 입장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에 누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처지에 따라 주변사람들이 보여주는 염량세태(炎凉世態)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과 당황스러움이 자주 기록되었다.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의 예상치 못한 냉대에 대한 기록은 유배일기에 특히 자주 등장한다. 게다가 일반백성들이 유배객들을 괄시하는 장면도 상세히 기록되곤 하였다. 이처럼 평소 같았다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노골적인 괄시나 은근한 무시가 자주 표현되어 있다. 이런 일들은 제아무리 양반이라 할지라도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대접이 달라지는 염량세태(炎凉世態)에 대한 깨달음을 일깨운다.

○ 쥬인을 기다리더니 황혼 때예 긔신의 계집이 압셤의 갓다가 와셔 감싁들을 참욕ᄒᆞ며 죽게 된 귀향달이를 저 맛딘다 ᄒᆞ고 ᄑᆞ려ᄒᆞᆫ 소ᄅᆡ를 질너 욕과 쑤딧기를 긋치디 아니ᄒᆞ니 이다히는 젹긱을 귀향달이라 ᄒᆞ야 쳔히 넉이는 말이러라. 내 듯다가 못ᄒᆞ야 제 싀아비게 죠졔ᄒᆞ야 달라 ᄒᆞᄃᆡ 듯디 아니코 이윽이 요란이 구다가 가니 즉시 그 집을 ᄯᅥ나고 시브ᄃᆡ 수령쳥으로 도로 가기도 엇더ᄒᆞ야 그날 밤을 계셔 디내고 죠반을 어이 흘고 ᄒᆞ더니 이웃

> 집의 쳔ᄃᆡ 어미라고 이셔 긔신의 쳐를 냥반 ᄃᆡ졉ᄒᆞᆯ 줄 모른다고 나모라 ᄒᆞ거ᄂᆞᆯ 내 그 말이 인ᄒᆞ야 죠반을 ᄒᆞ여 달라 ᄒᆞ니 그리 ᄒᆞ라 ᄒᆞ고 ᄯᅡᆯ을 갓다가 죠반을 ᄒᆞ여 주니 먹고 긔신이 아니오고 제 쳐도 요란 ᄲᅵᆫ 후 다시 오ᄂᆞᆫ 일이 업ᄉᆞᄃᆡ 게 잇쟈 ᄒᆞ기도 어렵고 다른 ᄃᆡ 갈 ᄃᆡ를 물나 난쳐 심난ᄒᆞ더니 홀연 ᄉᆞ령 ᄃᆞ니던 오앙살이가 와 보고 긔신 쳐의 불슌ᄒᆞ믈 분히 넉여 제 집의 뫼시려노라 ᄒᆞ고 가기를 쳥ᄒᆞ니 앙살의 의긔 아름답고 뎡히 갈 곳이 업ᄉᆞ믈 민망ᄒᆞ여 ᄒᆞ더니 앙살이 그리 친치 못ᄒᆞᆫ ᄉᆞ이예 가연이 제 집으로 가댜 ᄒᆞ니 엇디 고맙디 아니리오.[24]

김약행의 유배일기 「적소일기」의 한 장면이다. 김약행이 새로운 보수주인[25]의 집으로 가서 겪은 민망한 일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김약행이 새로운 보수주인의 집에 가서 주인을 기다리는데 황혼 때에 기신(새 보수주인 윤기신)의 계집이 앞섬에 갔다가 와서 감색들에게 욕을 하며 '다 죽게 된 귀향달이를 저한테 맡긴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과 꾸짖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듣다 못한 김약행이 그 계집의 시아버지에게 말려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다. 이다지도 양반의 권위가 무시될 수 있을까싶다. 그러나 김약행은 오랜 유배생활동안 이리저리 보수주인을 옮겨 다닌 것이 여러 번이라 이미 그 어떤 기백을 부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대놓고 무시하는 보수주인의 집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어디라고 갈 데도 없는 처량한 상황에서 코앞에 닥친 끼니 걱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마침 이웃집의 천대 어미라는 아낙이 기신의 처를 양반 대접할 줄 모른다고 나무라는 것을 보고 얼른 그 아낙에게 밥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선비로서의 고고한 기품은 찾아보기 힘들고 눈치나 살피는 초라한 노인의 그려질 뿐이다. '그리 친치 못한 사이'인 오앙살이가 기신 처의 행동에 분개하며 그에게 제 집으로

---

24) 「적소일기」, pp. 73-40.
25) 유배지에서 유배객이 머무는 집의 주인

가자고 청하자, '앙살의 의기 아름답고 …(중략)… 어찌 고맙지 아니리오.'라고 칭찬해 마지않는 김약행의 모습이 차라리 슬프다.

> ○ 계묘년을 디나 갑진년 ᄀᆞ을의 다ᄃᆞ라 셰ᄌᆞ 칙봉ᄒᆞ오시고 칭경대샤 ᄒᆞ오시ᄃᆡ 셔샹의 셰력이 오히려 셩ᄒᆞ고 알외여 주리업서 ᄯᅩ 샤던의 참예티 못ᄒᆞ니 이곳 사ᄅᆞᆷ들이 다 알기ᄅᆞᆯ 극ᄒᆞᆫ 듕죄ᄅᆞᆯ 디어 두 번 대샤의 노히디 못ᄒᆞ니 다시 노힐 가망이 업고 가망이 업다 ᄒᆞ야 더옥 업슈이 넉이더라.[26]

김약행은 계묘년 세자책봉 때 특별사면 될 것을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유배기간 동안 두 번의 대사령이 있었으나 조정에는 그를 위해 말을 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미 정배죄인이라고 유배지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공손치 않았는데, 이제 해배가능성이 희박한 양반이라고 여겨진 이후에는 대접이 더욱 가관이었다.

한편 박조수는 「남정일기」에 유배노정 중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지나는 길의 지역과 그 지역의 지방관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가 어떤 식으로 유뱃길의 어려움을 묻고 도움을 주었는지를 거의 빠트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 ○ 1) 쳔안새숫막의 니ᄅᆞ러 조반ᄒᆞ니 본관은 윤기충이니 윤참판 득죄의 아ᄃᆞᆯ이오 쳑의 이시니 젼갈ᄒᆞ고 뭇더라/ 젼쥐오니 황혼이 되엿더라 셩ᄂᆡ의 햐쳐 자바드니 감식 나와보고 뭇더라/
> 2) 태수 박좌원은 곳 종중이라 나와 보고 힝낭을 돕더라/ 슌쳔슈는 외쳑 임관쥐라 ᄌᆞ친뉵촌이라 녕하의 왓다가 듯고 편지ᄒᆞ고 냥찬을 도왓시매 답장ᄒᆞ여 보내다/ 김거축뎡치덕은 …(중략)… 와 보고 냥찬을 돕더라[27]

---

26) 「적소일기」, pp. 73-29.

27) 「남정일기」에 이런 종류의 기술이 매우 많지만 일부만 발췌하여 소개한다.

○ 감ᄉᆞ 민빅분은 친ᄒᆞ되 나와보디 아니터라/ 졍읍의 니ᄅᆞ러 자니 쥬슈는 김현죄니 쳑분이 이시되 나와보도 아니코 또ᄒᆞᆫ 젼갈ᄒᆞ는 일도 업더라[28]

이런 기록은 일정한 공식구를 보인다. 먼저 지나는 곳의 지역명, 수령의 이름과 간략한 인적정보를 밝힌다. 그리고 그들이 그저 '나와 묻는' 것에서부터 '양찬, 노자'를 돕고, '전갈(편지)를 보내왔다는 것'까지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 구조를 보인다. 지나는 곳의 지역명, 수령의 이름과 간략한 인적정보를 밝히고, '나와 보지도 않더라'는 말로 마무리 하고 있다.

지나는 거의 모든 곳마다 그 지역의 지방관이나 지인들이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왜 찾아와 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오지 않았는지를 간략하나마 반드시 기록한 이유는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기대를 저버린 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기억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간략한 메모 정도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 느낀 감회나 생각에 대해서는 깊이 알 수 없으나, 마치 조의금 명부를 작성하듯이 정확히 기록한 것만은 분명하다. 유배객들이 해배되어 돌아와 이 기록을 다시 보게 된다면, 혹은 가족이나 후손들이 이 기록을 보게 된다면 '찾아와 유뱃길의 어려움을 묻고 양찬(糧饌)과 노자를 돕거나 편지를 보내왔다.'고 적혀 있는 사람과 '나와 보지도 않더라.'고 적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가진 신념이나 정치적 입장은 이 간단한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유배 가는 자신을 도왔는지, 돕지 않았는지만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 대한 선악(善惡), 호오(好惡)의 판단도 이 두 가지 행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조의금 명부와 같은 이런 기록들이 유배일기 속에 셀 수 없을 만

28) 「남정일기」에 있는 이런 종류의 기술 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큼 많다. 이처럼 지방관들이나 지인들이 보내오는 품목들을 자세히 적어 두는 일은 유배에서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듭 말하자면 '후일에 잊지 않는 자료로 삼을 요량'[29]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행위는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둘러싼 인적 환경을 파악하는 가장 흔한 자세이다.

> ○ 져물게 천안고을삼거리 주막의 이르니 고을의 ᄉᆞ는 두어 ᄉᆞᄅᆞᆷ이나 지난단 말를 듯고 ᄎᆞ져와 셔로 위로ᄒᆞ며 참아 이별치 못ᄒᆞ여ᄒᆞ니 ᄯᅩᄒᆞᆫ 유심헌 ᄉᆞᄅᆞᆷ일너라[30]

'고을에 사는 두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은 이세보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유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태도에 실망했었던 이세보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찾아와 위로해 준 그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껴서인지 아주 간략하나마 글에 언급하였다. 그들을 '유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고마움의 완곡한 표현이다.

> ○ 빅일명이라ᄒᆞ는 하인이 대ᄉᆞ간되 가나되 오히려 가디 아니코 아동셔 ᄉᆞ환ᄒᆞ다가 ᄯᅩ 다쳥좌의 니ᄅᆞ러 하직ᄒᆞᆯ ᄉᆡ 슬픈 비치 만흐니 그 무지ᄒᆞᆫ 하비로ᄃᆡ 이러ᄐᆞᆺ ᄒᆞ기 심히 이샹터라.[31]

---

29) 可畦 趙翊 선생의 유배일기 「公山日記」에는 "가까운 곳의 군수 및 오랜 친구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물자를 함께 베풀어 보내 주었다. 순상께서 또한 생선, 고기, 종이, 약초 등을 넉넉히 보내주니 나그네의 살림살이에 가히 감동스럽다. 날마다 내방하는 사람을 계묘년부터는 그 달의 마지막 에 나란히 기록하여 후일에 잊지 않는 자료로 삼을 요량이다"(조동길, 『可畦 趙翊 先生의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p. 110.)라는 기록이 있다.

30) 「신도일록」, pp. 4-5.

31) 「남정일기」, p. 12.

‘무지한 하배’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한 감동도 묘사하고 있다. ‘무지한 하배’가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줄 알 뿐만 아니라 이별에 슬퍼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심히 이상타’고 표현하는 바탕에는 실은 ‘하배’를 무시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인정’이라는 덕은 자신과 같은 양반들에게는 너무나 일반적인 당연한 미덕이지만, ‘하배’에게는 드물게 발견되는 기특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바탕에는 차별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 전에는 돌아보지 않았을 ‘하배’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울 수 있었던 것도 유배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지만, 관찰과 기록의 의지는 자기 삶의 실질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보수주인이나 유배지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떠나는 유배객을 배웅하면서 헤어지기 아쉬워 먼 길까지 따라나서거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유배일기에는 자주 그려져 있다. 그들에 대한 서술자의 고마움과 아쉬움 등의 심정도 그 기록 속에 묻어난다. 유배를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 그 어떤 기록물에도 자취를 남기기 어려운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유배일기의 미덕이다.

요컨대 유배객들은 유뱃길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게 되어 실망하는 일이 잦다. 정치적 부침에 따라 아첨과 푸대접을 번갈아 하는 이 같은 염량세태를 절감한 유배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정에 필요 이상 감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결국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정치적 신념이나 그 외의 객관적 잣대를 상실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호의적인 인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유배일기에는 이러한 염량세태에 대한 자기중심적 이해의 모습이 솔직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유배일기에 등장하는 인물유형 중에 가장 길게 묘사되고, 관련된 사건의 전말이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유형은 유배객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다. 기록이 상세하다는

것은 유배객들이 그들에게서 느낀 충격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하게 한다.

「신도일록」에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 할 만한 어떤 인물과 그의 행동이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다.

> ○ ᄒᆞ로는 한 ᄉᆞᄅᆞᆷ이 잇셔 위리틈을 ᄐᆞᆺ쳐셔 문안ᄒᆞ거날 ᄂᆡ 놀나 무러가로ᄃᆡ 그ᄃᆡ가 누군고 그 ᄉᆞᄅᆞᆷ이 ᄃᆡ답ᄒᆞ여 가로ᄃᆡ 나는 곳 옥동김판셔ᄃᆡᆨ 겸인이요 셩명은 김시명이란 ᄉᆞᄅᆞᆷ이라 년젼의 ᄃᆡ젼별감 황희준 타살헌 ᄃᆡ로 인년ᄒᆞ여 이 셤의 충군한 지가 우금 삼년이ᄋᆞᆸ더니 …(중략)… 셧달의 이르러 몽방ᄒᆞ여 가노라ᄒᆞ기 다만 잘가라ᄒᆞ고 무슨 말리 ᄯᅩ 잇쓰리요 젼젼으로 드른즉 궐한이 올나가는 길의 …(중략)… 집팡이를 ᄀᆞ져셔 충돌ᄒᆞ여 가로ᄃᆡ 나는 곳옥동김판셔ᄃᆡᆨ ᄋᆡ겸이요 즉금인 즉 위리중 계신 양반게 신임ᄒᆞ난ᄉᆞ람이라 네 엇지 감히 나를 당ᄒᆞ리요 …(중략)… 이갓흔 강도놈은 셰샹의 다시 ᄶᅡᆨ이 업고 허믈며 을ᄆᆡ간의 날갓치 죽고져ᄒᆞ는 ᄉᆞᄅᆞᆷ의게 말를 빙ᄌᆞᄒᆞ고 화를 옴기고져ᄒᆞ니 마음의 엇지 졀통ᄒᆞ고 분ᄒᆞ지아니ᄒᆞ리요 …(중략)… 이어 드른즉 본관이 이 ᄉᆞ단을 빙ᄌᆞᄒᆞ여셔 다른 말를 무수이 부익ᄒᆞ여 경셩의 젼파ᄒᆞ는 거시 무소부지ᄒᆞ니 이면을 ᄌᆞ셰히 모르고 안져듯는 이야 날노쎠 엇던 ᄉᆞᄅᆞᆷ이라ᄒᆞ게는고 이 죽기를 구ᄒᆞ여도 겨를치 못ᄒᆞ는 ᄯᅴ를 당ᄒᆞ여 불측헌 ᄯᅡ의 모함ᄒᆞ고져ᄒᆞ니 한번 죽ᄊᆡ는 진실노 마음의 달게헐 ᄇᆞ이로ᄃᆡ 쳔ᄃᆡ아ᄅᆡ 눈을 엇지 가무며 쎄이 엇지 썩으리요 이갓흔 말를 긔록ᄒᆞ는 거시 ᄯᅩ한 장황ᄒᆞ고 구구ᄒᆞ되 이갓흔 허망헌 말리 일양젼파한즉 이 이른ᄇᆞ 셰번 젼ᄒᆞ는져 ᄌᆞ범이라 엇지 남의 용셔ᄒᆞ믈 ᄇᆞ라며 춤 밧트믈 면ᄒᆞ리요 ᄒᆞ릴 업시 ᄉᆞ의무칙이로다.[32]

어느 날 옥동 김판서의 겸인이라고 하는 김시명이라는 사람이 이세보를 찾아왔다. 외로운 섬에서 만난 경성사람이라 반가울 만도 하였으나 그가 '대전별감 황희준을 타살'한 흉악한 죄로 섬에

32) 「신도일록」, pp. 33-37.

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더 가까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가 떠난다고 할 때 인사만 했을 뿐 '추호도 간섭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 김시명이라는 작자는 적소에 유배되어 있는 유배객들의 이름을 팔며 섬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사기꾼이었는데, 이세보도 그의 사기행각에 이용된 것이다. 그는 '나는 옥동 김판서댁 겸인이요, 지금은 위리 중에 계신 양반께 신임 받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신지도 위리하신 양반'인 이세보에게 옷과 양식과 반찬을 해 드릴 것이라고 하며 무고한 섬사람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았다. 위리안치 되어 있어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이세보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팔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더욱 답답한 것은 '본관이 이 사단을 빙자하여 다른 말을 무수히 부익하여 경성에 전파'한다는 것이다. 일의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세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이세보가 두려워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유배객을 괴롭히는 것은 추위와 더위, 배고픔, 사람들의 냉대뿐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유배객들을 괴롭히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었다. '사기사건 따위에 연루되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번 죽는 것이 낫다.'고 한 것은 아마도 이세보의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이세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기록하는 것뿐이었다. 스스로도 말하였듯이 '이 같은 말을 기록하는 것이 또한 장황하고 구구'하지만, 잘못된 말이라도 여러 번 인구에 회자되고 나면, 그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이세보가 이 일을 얼마나 괴롭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세보는 능력 있는 종친이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은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비록 유배를 당해 위리안치 되어 있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는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한낱 사기꾼의 사기행각에 이용당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

을지 그의 장황한 서술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세보는 비록 유배에 처해 있지만, 엄연한 왕족의 한 사람을 농락하는 김시명이라는 존재를 통해, 처절한 염량세태를 실감했을 것이다.

요컨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인심이 유배객들에게는 새삼 절절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실제로, 작품 속에 드러나는 주변 인물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적객인 자신에게 호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나 됨됨이, 사고방식 등에 대한 평가는 차후에 이루어지거나 대부분 생략된다. 즉, 비교적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인정세태를 묘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선'하게 묘사하고,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매정'하게 묘사하였으며, 자신을 괴롭힌 사람은 '천하의 악인'으로 묘사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자기의 입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유배객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는 매우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어, 그들에게 느낀 분노와 억울함이 솔직하게 드러나기도 하였다. 악인에 대한 懲治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인물에 대한 고발과 분노의 표출로 보인다.

이러한 인정세태의 기술 태도는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자신을 둘러싼 인적 환경을 이해하려고 한 결과이다.

3. 조선후기 유배일기의 인정세태 기록의 특징

-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진지한 탐색 결여

앞서 유배는 여행이 수월하지 않던 중세에 어쩌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서 유배일기를 일반적인 기행문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엄연히 유배는 징벌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유배란 유배객이 낯선 공간과 사람들 속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그곳으로 내쳐지게 되는 사건이다. 게다가 유배는 목적지와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하고 기록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고단한 일상의 연속일 수도 있다. 요컨대 유배객들은 유뱃길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통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배객들은 다양한 인간형들을 접하기는 하였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형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그 사회적·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정도로까지 의식을 심화시켜 나아갔다고 할 수는 없다. 유배일기에 심심찮게 서술되어 있는 하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그동안 부리며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고, 일상의 주변에 늘 존재해 왔던 사람들이었다. 단지 그런 사람들의 행위들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상황 때문에 새삼스럽게 관찰과 기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비교적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 부정적 인간형 또한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관찰과 탐색의 결과라기보다는 유배객의 삶을 위협한 인물들에 대한 울분 섞인 고발일 뿐이다.

조선후기는 이전의 시대와 문학사적으로 다양한 문학 갈래들과 숱한 문학적 시도들이 명멸하였던 시대였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문학적 분위기 속에서 유배일기는 안타깝게도 문학적 도전과 시대상에 대한 탐색이라는 발전적 길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유배일기 또한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던 사회변화의 조짐들에 관심을 기울여 작품으로 승화시키곤 했던 조선후기의 문학적 분위

기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인간유형과 변화하는 시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고, 이들의 시대적 의미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색한 작품들과 대등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조선후기의 중요한 사회현상 중 하나였던 推奴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전이나 야담등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다.

○

1) 고배천 도홍을 여기에서 만났는데 곧 고양의 사인으로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하여 온 것이다.
2) 식후에 친우 권씨와 선달 이지발 그리고 허유와 첨지 허섬이 찾아왔다. 두 허씨는 곧 허건의 종제로 도망간 종을 찾으려고 여기 온 자이다.
3) 서울 사는 사인 정운장이 찾아왔는데 도망간 종을 찾으러 온 사람이다.
4) 서울 사는 선달 박경덕이 찾아왔는데 즉 사인 박행의의 재종질이다.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하여 온 것인데 처음 만나 잠시 이야기 하였는데도 마치 예전부터 사귄 사이 같았다.

한문 유배일기인 「太和堂北征錄」[33]에는 추노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종종 보인다.[34]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났다면 추노의

---

33) 태화당 이광희(李光熹)가 을사년(1725년)부터 정미년(1727)까지 3년 동안 함경도 명천에 유배되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유배일기이다. 한문 유배일기이지만 본고가 논의하고 있는 한글 유배일기에 대한 방증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지사항은 『國譯 太和堂北征錄』,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다운샘, 2007, pp. 3-10을 참조.

34) 1) 高生配天道弘相見於此卽高陽士人而爲推奴來也(p. 71.)
2) 食後權友及李先達枝發許生鎁許僉知銛來訪二許卽許鍵之從弟而推奴來此者也(pp. 73-74.)
3) 京居士人鄭運章來見推奴客也(p. 93.)
4) 京居朴先達慶德來訪卽朴舍人行義之再從姪也推奴到此傾蓋如舊(p. 205.)
이상은 『國譯 太和堂北征錄』(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다운샘, 2007) 인용.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언급할 만도 한데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담이나 전의 일부작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추노의 과정이나 추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과 설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단지 저자인 李光憙가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는 도중에 잠시 언급될 뿐이다. 물론 이러한 언급들이 간접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짐작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술자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의식적으로 서술한 것은 아닌 것이다.

벼슬살이를 하지 않아 사대부 사회에서 다소 동떨어진 부류들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꿰뚫어 보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전승시켰고 이를 통해 조선후기 야담이 현실성을 견지하는 고유한 작품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보는[35] 견해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객관적 눈을 들이대고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으려면 오히려 벼슬과 무관한 사회적 입지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배객들은 비록 벼슬에서 쫓겨나 있긴 하지만 벼슬과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배라는 상황은 애초에 벼슬에 있지 않았던 것보다 더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작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유배일기에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관찰의 욕구가 부족한 이유는 유배경험이 애초에 갖고 있는 물리적 제한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유배객들의 의식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배생활 중에는 오로지 해배와 해배가능성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유배는 유배객 자신이 스스로 원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환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탐색과 관찰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유배생활은 한정된 공간과 한정된 인간관계만을 허용했으므로 관

35) 서대석 외, 『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7, p. 74.

찰의 영역은 협소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관찰하고 기록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유배생활이 고단할 수도 있다. 즉, 유배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유배생활과 직접 관련된 인물에 대해서만 주로 기록했을 뿐이다. 자의든 타의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간혹 자신을 찾아와 주는 낯선 인물인 유배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긴 하다. 이런 것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과 서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자신의 삶에 개입한 인물에 대한 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술일 따름이지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한 기술은 아니다.

요컨대 유배일기는 변화하는 조선후기의 시대흐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탐색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 인간형에 대한 묘사'라는 측면에서는 일부분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36]

유배일기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만 기록한 것이 원래 일기가 가지고 있는 신변잡기적

---

36) 물론 유배의 상황에 따라 인정세태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는 한다. 「남해문견록」, 「북관노정록」, 「남정일기」와 「적소일기」, 「신도일록」은 유배의 기간이나 분위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전자의 일기들은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와 짧은 유배생활을 배경으로 기록된 일기들이고, 후자의 일기들은 위리안치되었거나 해배의 조짐이 막연해지도록 오랜 기간의 유배생활을 배경으로 기록된 일기들이었다. 물론 서술의 특징을 살핌에 있어 작자의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겠지만, 작가의 성향을 논외로 친다면 유배의 기간과 분위기가 일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전자의 일기들에는 하인들의 일탈에 대한 불평이 서술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넘기는 여유가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일기들에는 유배지의 사람들이 보여준 괄시와 구박, 사건 사고들이 매우 상세히 서술되고 있어서, 그런 일들에 유배객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약행과 이세보의 일기는 당황스러운 염량세태에 대한 서술행위 자체가 울분을 쏟아놓는 방편인 듯한 인상을 준다.

성격에 기인할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기는 자기의 삶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다. 유배로 인해 삶의 조건이 변화했다면 그 변화된 인적 상황에 대해 쓰는 것이 오히려 일기의 본질에 부합한다. 그러나 유배일기는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인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적극적인 관찰욕구를 보이지 못했다. 거듭 말하지만 유배는 유배객들의 삶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유배는 중세에만 존재한 형벌의 한 종류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험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한글로 기록된 유배일기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낯선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과 기록의 의지는 없어 보였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상과 새로운 인간형은 조선후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의 현장에 있었던 유배객들은 그런 것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대신 오랫동안 그들 주변을 지켜왔던 사람들에 대한 새삼스런 관찰의 결과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인물평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조선후기의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 기록의 양상을 위의 두 가지로만 요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유배가 제아무리 어떤 특정한 조건-저자의 문학적 소양, 유배로 인한 새로운 경험-아래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형벌의 무거움과 제약성을 완전히 벗어나, 도전적이고 새로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유배일기에 나타난 인정세태에 대한 기술 속에 일정부분 미시사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다. 유배객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스치듯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유배객의 실질적 삶과 관련된 부분까지였다.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관찰, 다양한 인간형에 대한 탐색을 하기에는 유배라는 상황이 유배객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여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배는 원치 않는 것일지언정 낯선 곳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관찰과 탐색이 여의치 않도록 하는 제약이기도 하였다. 유배는 엄연히 징벌의 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도일록」
「남정일기」
「적소일기」
『遺敎』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북관노정록』, 신성출판, 1999.
유의양 저, 최강현 역, 『후송 유의양 유배기 남해문견록』, 신성출판, 1999.
임재완 편역, 『백사 이항복 유묵첩과 북천일록』, 다운샘, 2005.
『國譯 太和堂北征錄』, 鶴城李氏 越津派 汝堂門會, 다운샘, 2007.

2. 논문

김경숙, 「조선시대 유배길」,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67, 2004, pp. 262-282.
김덕삼・최원혁, 「제주도 문화의 분석, 확대, 창조에 대한 다각적 고찰」, 영남

대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제71호, 2014, pp. 317-348
김호,「18세기 후반 진도로 유배된 선화자 김약행의 삶과 고통」:「적소일기」를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사,『문헌과 해석』27호, 2004, pp. 79-103.
박길남,「李世輔의 流配時調 硏究」, 한남대 한남어문학회,『한남어문학』17·18, 1992, pp. 179-192.
박준원,「『坎窞日記』연구」, 우리한문학회,『한문학보』19, 2008, pp. 432-461.
양순필,「流配文學에 나타난 作家의 社會的 性格考」, 한남대 한남어문학회,『한남어문학』13, 1987, pp. 17-33.
염정섭,「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한국역사연구회,『역사와 현실』24, 1997, pp. 220-262.
이승복,「『遺敎』의 書誌와 文學的 性格」, 서울대 규장각,『奎章閣』20, 1997, pp. 55-73.
이승복,「「謫所日記」의 文學的 性格과 價値」,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고전문학과 교육』5, 2003, pp. 91-113.
이승복,「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적 의미-조선후기 국문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고전문학과 교육』14, 2007, pp. 31-62.
정우봉,「일기문학의 관점에서 본 坎窞日記의 특징과 의의」, 한국한문학연구회,『한국한문학연구』46, 2010, pp. 418-447.
정우봉,「이세보의 국문 유배일기『薪島日錄』연구」, 한국고전문학회,『고전문학연구』41, 2012, pp. 411-445.
진동혁,「李世輔의 流配時調 硏究」, 단국대학교,『논문집』15, 1981, pp. 9-44.
최강현,「南征日記를 살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어문논총』4·5, 1985, pp. 121-130.
최은주,「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회,『대동한문학』제30집, 2009, pp. 5-40.

3. 단행본

김희동,『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2003.
서대석 외,『한국인의 삶과 구비문학』, 집문당, 2007.
조동길,『可畦 趙翊 先生의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황위주,『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Abstract]

A Study on the Exile Dia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bout the Features of Character Portrayal

Cho, Su-Mi

This study has shown th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of the current of the times represented in exile-journals during the late years of Joseon Dynasty. Exile-journals are the records that literary men wrote what they had experienced staying in unfamiliar places. It has been studied how the current of the times exiles had lived was depicted in exile-journals in the late turbulent Joseon Dynasty.

But exile-journals examined in this study little included the description of the changing society and unique types of human. Instead, it is revealed that they primarily involved the illustration of the new observation results of people who had kept staying around exiles and the self-centered and subjective comments about people according to their attitudes exiles were faced with.

There must be some degree of historical values in the description of the current of the times seen in exile-journals. It is because they had a light touch of expression of the images of people who had been mingled with in exiles' lives. The comments about people around them, however, are confined to the connection with their practical lives. As exiles couldn't afford to have physical and mental affluence in exile, they might have trouble paying more attention to, keeping an eye on the changing society and watching a variety of people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Exile could be a chance to move to unknown places, although unwant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meant the limitation of active and objective observation and inquiry. Because it was, actually, a form of punishment.

Key words: exile-journal,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urrent of the times, the worldly-minded current of the times

조수미
소속: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2(장전동) 부산대학교
전화번호: 010-3496-0627
전자우편: 93chosm@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